



박지훈

## KIA 박지훈 '신인왕 갈증' 풀까

1985년 이순철 이후 27년 미뤄온 '호랑이굴 축제'

투수 한승혁, 야수 윤완주·황정립 선수도 기대주

KIA 타이거즈는 30년의 프로야구 역사에서 10차례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수많은 골든글러브 수상자와 MVP를 배출했다.

하지만 유독 신인왕과는 인연이 없다. '야구천재' 이종범은 물론 특급 신인이었던 김진우·한기주, '꼬꼬마 키스톤' 김선빈·안치홍도 신인왕은 품지 못했다.

1985년 '재간둥이' 이순철이 신인왕에 오른 게 처음이자 마지막. KIA 유일의 신인왕 이순철이 친정으로 돌아온 2012년, KIA의 신인왕 갈증이 풀릴 수 있을까?

12일 오키나와에서의 마지막 훈련을 한 투수 박지훈·한승혁, 야수 윤완주·황정립에게는 이번이 첫 스프링캠프다.

박지훈·윤완주·황정립은 올 시즌 프로야구 무대에 뛰어든 대졸 신인. 2011년 1라운드 지명을 받고 입단한 고졸신인

한승혁은 팔꿈치 수술로 지난해 스프링캠프에 참여하지 못했다. 캠프 초보 4인방은 1군 진입과 신인왕이라는 목표를 향해 60일 가까운 시간 구슬땀을 흘렸다.

'신인왕' 이순철 수석코치가 우선 꼽는 신인왕 후보는 박지훈이다. 단국대를 졸업한 박지훈은 1라운드에서 KIA의 낙점을 받은 우완투수로 140km 중반의 직구와 슬라이더·커브·포크볼 등 다양한 변화구를 장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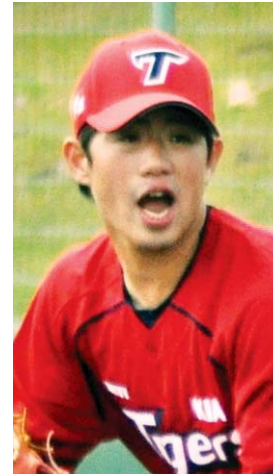
이 수석코치는 "내가 신인왕을 했던 당시에는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자기자리가 없으면 성적을 내기 힘들다. 신인왕을 노리려면 일단 1군 무대에 진입을 해야하는데 박지훈이 가장 1군에 근접해 있다"며 "대학 시절 많이 던져봐서 그런지 마운드 운영에 여유가 있다. 신인으로서 제구가 흔들리지는 하지만 노련



한승혁



윤완주



황정립

한 피칭을 하고 있다"고 박지훈의 '여유'를 장점으로 꼽았다.

박지훈은 제구 잡기라는 숙제를 안고 있지만 연습경기에서 과감한 피칭과 다양한 변화구로 좋은 점수를 받았다.

한승혁에 대해서는 "팔 스윙은 좋지만 릴리스 포인트가 일정치 않다. 수술후에 많이 던지지 못한 만큼 앞으로 피칭을

많이 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또 이 수석코치는 "윤완주는 유틸리티로 내·외야를 소화하고 있는 등 야구 센스가 있다. 황정립의 경우 타이밍 맞추는 부분에서 기복이 심하지만 스윙이 참 좋다"면서도 "두 선수 모두 재능은 있지만 주전이 아니기 때문에 자리를 잡는 싸움을 먼저 해야 한다. 신인왕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주전들을 밀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캠프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은 야구 호랑이 4인방은 17일 시작되는 시범경기를 통해서 1군 진입을 위한 마지막 테스트를 받는다.

명맥이 끊긴 신인왕 계보를 이을 선수가 탄생할 수 있을지 시범경기의 또 다른 관망사가 될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KIA 대학생 객원 마케터 모집

KIA 타이거즈가 제8기 대학생 객원 마케터를 모집한다.

홈에서 열리는 KIA 전 경기에 참여할 수 있는 호남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18일까지 이메일(kiatigersno1@naver.com)을 통해 접수 받는다. KIA는 1차 서류심사에 이어 2차 면접을 통해 최종 8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객원 마케터에게는 프로야구가 열리는 전국 구장을 출입할 수 있는 AD카드와 구단 모자, 유니폼이 지급된다. 또 한국야구위원회(KBO) 주최 각종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

객원 마케터는 홈경기 현장 실습을 통해 스포츠마케팅 실무를 익히고, 구단 및 프로야구 발전을 위한 각종 아이디어 제안 등 제시된 과제를 제출하게 된다. (문의: 070-7686-8042)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추신수 또 멀티히트

시범경기 타율 3할대

추신수(30·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이틀 연속 멀티히트(안타 2개 이상)를 때려내고 시범경기 타율을 3할대로 끌어올렸다.

추신수는 12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스프링필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텍사스 레인저스와의 미국프로야구 시범경기에서 3번 지명 타자로 출전, 3타수2안타를 때렸다.

전날 홈런 포함 2타수2안타의 상승세를 이어간 추신수는 타율을 0.357(14타수5안타)로 높이고 순항을 이어갔다. 안타 5개 중 4개를 2루타 이상의 장타로 장식하며 장타율 0.929를 기록했다.

추신수는 1회 2사 주자 없는 상황에 나선 첫 타석에서 중월 2루타를 날려 득점 찬스를 만들었다. 그러나 후속타자가 삼진으로 물러나 홈에 이르지 못했다.

6회 1사 1루에서는 깨끗한 우전 안타로 1,



3루 기회를 만들지만 후속타자가 병살타를 쳐 득점에 실패했다. 추신수는 9회에 대타로 교체됐다. 클리블랜드는 텍사스에 1-6으로 졌다.

한편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의 한국계 포수 최현(미국명 핵크 롱거)은 두 개 차로 나란히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다른 조와의 경기에서 선발 출장해 4타수1안타를 때리고 타율 0.222를 기록했다.

피츠버그와의 경기에 교체 출전한 탬파베이 의 유망주 이학주(22)는 삼진 1개를 당했고, 타율은 0.154로 낮아졌다. /연합뉴스



이 기분 올림픽까지

이용대(왼쪽)와 정재성이 12일(한국시간) 영국 버밍엄 국립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2 전영오픈 배드민턴 슈퍼시리즈 프리미어대회 남자복식에서 우승을 확정지은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용대·정재성 "런던 金 보인다"

세계 랭킹 1위 중국 꺾고

전영오픈 배드민턴 우승

주니어 배드민턴 독일오픈 이장미·화순고 전주이 銀

한국 셔틀콕 여자단식의 기대주 이장미(유봉여고)가 2012 독일오픈 주니어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에서 정상에 올랐다.

이장미는 11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의 스포르트아레나에서 열린 여자단식 결승에서 말빈 안 베티스 알칼라(필리핀)를 2-0(21-15 21-17)으로 제압하고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또 여자복식 결승에 나선 전주이

(화순고)-양수연(대진대)조는 인도네시아의 멜라티 디에바 옥타비아나-로시타 에카 푸트리 사리 조에 0-2(9-21 13-21)로 패해 아쉽게 은메달을 차지했다.

여자복식의 한가희(화순고)-김혜린(성지여고), 이장미-어연우(포천고) 조와 혼합복식의 배권영(전남기술과학교)-김지연(제주여고) 조도 동메달을 추가했다. /연합뉴스

한국 셔틀콕 남자복식의 간판 이용대-정재성(이상 삼성전기) 조가 2012 전영오픈 배드민턴 슈퍼시리즈 프리미어 대회에서 만리장성을 넘어 4년 만에 '금빛 스매싱'을 휘둘러 런던 올림픽 금메달 전망을 밝혔다.

세계랭킹 2위인 이용대-정재성 조는 12일 새벽(한국시간) 영국 버밍엄의 국립실내체육관에서 끝난 남자복식 결승에서 라이벌인

차이원-푸하이펑(중국·세계랭킹 1위)조에 2-1(21-23 21-9 21-14) 역전승을 거두고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이로써 이용대-정재성 조는 2008년 이 대회 우승 이후 4년 만의 정상 탈환과 함께 런던 올림픽을 앞두고 최대 라이벌인 차이원-푸하이펑 조와의 기싸움에서도 우위를 차지했다. 더불어 이용대-정재성 조는 차이원-

푸하이펑 조와의 역대전적에서도 11승10패로 앞서게 됐다.

이날 결승전은 '머리 보는 런던 올림픽 결승전'이라고 불릴 만큼 경기 내내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이용대-정재성 조는 첫 세트를 21-23으로 내쳤다.

반격에 나선 이용대-정재성은 2세트에서

는 6-4 상황에서 8연속 득점으로 승기를 잡은 뒤 21-9로 가볍게 세트를 가져와 승부의 균형을 맞췄다.

마지막 3세트에 들어선 이용대-정재성 조는 19-12로 앞서다 정재성이 매치 포인트를 만든 뒤 3실점 했지만 이용대가 마지막 공격에 성공, 21-14로 이겨 1시간 6분의 혈투에 마침표를 찍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유일한 **고객 맞춤형 호텔웨딩!!!**

# 신양파크호텔

오직 한쌍만을 위한 웨딩...  
당신의 가장 소중한 순간을 위해 준비 했습니다.

적용기간 **4월 22일~5월 20일 / 7월~8월**

예약문의 **062-221-4101~3** <http://shinyangparkhotel.com>

**₩25,000** 부터~ (세금 별도)